

경기공유학교 소식지

2023 / 가을호 / VOL.02



경기공유학교 소식지 2023 / 가을호 / VOL.02

발행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지도위원 지역교육협력과 과장 김인숙 장학관 지종문
 기획 지역교육협력과 장학사 갈민정 집필 및 편집 퇴계원초등학교 교감 박승균, 평동초등학교 교감 오승환, 인창초등학교 교감 박미영,
 평동초등학교 교사 최지이, 남양주셋별초등학교 교사 김선민, 고양화정초등학교 교사 김지연, 파주대원초등학교 황유진, 해솔초등학교 교사 김만숙
 발행일 2023. 11. 30.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도청로 28 홈페이지 <https://www.goe.go.kr/> 전화 031-249-0763

경기공유학교 소식지

2023 / 가을호 / VOL.02

발행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지도위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과장 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장학관 지종문
기획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장학사 갈민정
집필 및 편집 2023 경기공유학교 홍보지원단
퇴계원초등학교 교감 박승균
평동초등학교 교감 오승환
인창초등학교 교감 박미영
평동초등학교 교사 최지이
남양주셋별초등학교 교사 김선민
고양화정초등학교 교사 김지연
파주대원초등학교 황유진
해솔초등학교 교사 김만숙
발행일 2023. 11. 30.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도청로 28
홈페이지 <https://www.goe.go.kr/>
전화 031-249-0763



- 04 특집 경기공유학교의 이모저모
- 06 모두가 희망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광주하남형 미담하이 공유학교의 시작!
- 08 ‘동두천(D) 양주(Y)교육의 중심인 아이들(I)’이 함께하는,
D.I.Y 공유학교
- 10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의 가치를 일깨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연천(生生) 공유학교!
- 12 다가치 시흥, 다문화 시민, 다함께 시작
다 시 시흥 공유학교
- 14 학생 지역주민이 다함께!
세종 같이학교(여주형 경기공유학교)!
- 16 자율/균형/미래로 나아가는 용인형 공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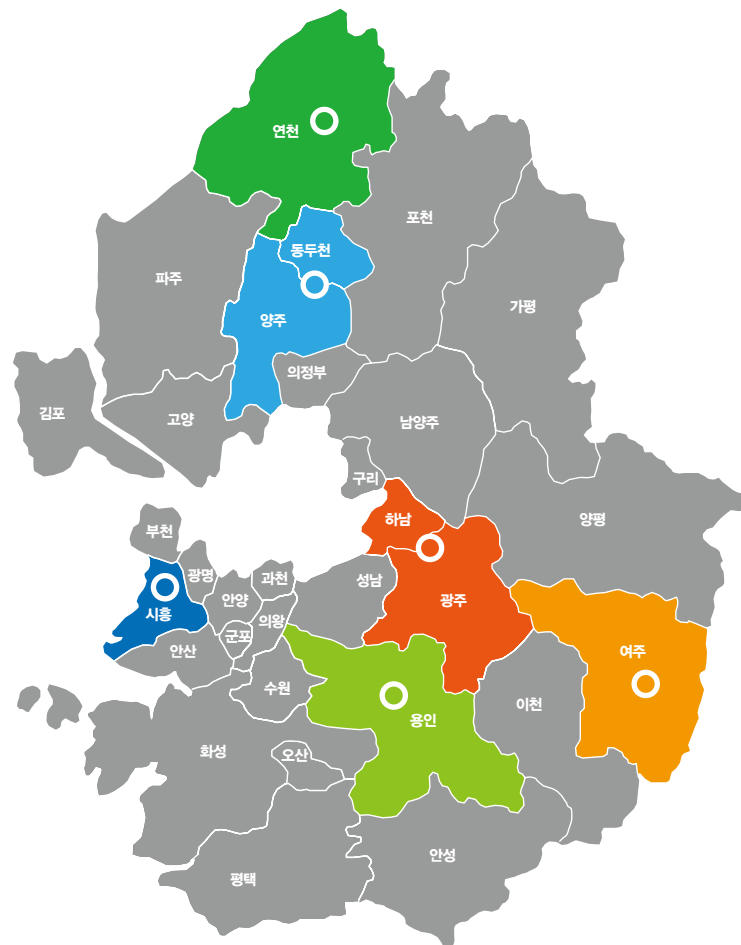
경기공유학교의 이모저모

공유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한 마디로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심 분야에서 더 넓고,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31개 시·군의 정책추진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 정책실행연구회, 정책연구, 모델개발 TF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공유학교 모델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는 6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경기공유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하는 ‘준비 및 도입기’를 거쳐 2024년 경기공유학교 통합시스템 개발 및 지역맞춤 공유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공유학교를 확산시킨 뒤, 2025년 경기공유학교 모델 다양화 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공유학교 권역별 네트워크



- 광주하남 중소도시형 (구리남양주, 성남)**
 지역맞춤 특색있는 공유학교로 미래인재양성
 “광주미담도자기 공유학교”
 “하남하이캠퍼스 공유학교”
- 여주 인구감소형 (양평, 이천, 안성, 가평)**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연계 운영
 “청소년 같이 한마당 공유학교”
 “세종과학캠프 공유학교”
- 용인 도농복합형 (수원, 화성오산, 평택, 안산)**
 학교교육과정 연계 공유학교 운영
 “학생맞춤 소그룹 프로젝트형 공유학교”
 “용인형 공유학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연천 인구감소형 (파주, 포천)**
 생생 공유학교 운영
 “주제중심형 생생 여름 공유학교”
 “자율방문형 생생 물사랑 학교 외”
- 동두천양주 중소도시형 (김포, 의정부, 고양)**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맞춤 공유학교 운영
 “캠프형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동두천형, 양주형 공유학교 공간 구축”
- 시흥 다문화형 (부천, 광명, 안양과천, 군포의왕)**
 권역 내 다문화 주제별 거점 공유학교 운영
 “맞춤형 진로 및 이중언어 공유학교”
 “상호문화이해 및 정서심리지원 공유학교”



경기공유학교 예산! 궁금해요!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3년에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시범 교육지원청별로 800 ~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하여 배부하였으나, 2024년은 지역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탄력성과 자율성 확대에 학생수에 따라 31개 시군 차등하여 편성될 예정이다.

지역 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공유 학교를 통해 우리 학생 들은 미래 사회의 인재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공유학교 엠블럼을 소개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맞춤 공유학교 엠블럼 공모를 경기 교육에 관심있는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당선된 초·중학생 당선자에게는 교육감 표창장이 수여 되었고, 2차 최종심사를 거쳐 양성중 교직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의미 :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공유 학교 세개의 동그라미에 자율, 균형, 미래의 색채를 담음. 연결된 선은 지역교육협력 및 학생 맞춤교육을 상징하며 지역 모든 학생에게 균등 한 교육 기회 보장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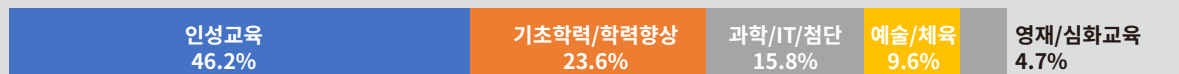
경기공유학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2명, [기간] 2023.9.13.~20.(8일),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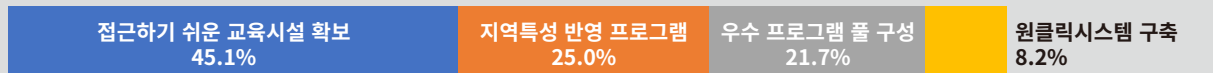
경기공유학교 정책 공감도



경기공유학교 주력 희망 분야



경기공유학교 여건 조성 지원방안





모두가 희망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광주하남형 미담하이 공유학교의 시작!

광주하남형 미담하이 공유학교는 광주와 하남 지역의 특색화, 유휴 교실 활용,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수요를 맞춘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학생들이 맞춤교육을 통하여 미래를 꿈꾸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담다, 하이(high)역량을 키우다’ 비전을 가진 『광주 미담도자기 공유학교』와 『하남 하이캠퍼스 공유학교』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하남, 미담하이 공유학교를 시작하다!

『광주 미담도자기 공유학교』는 ‘너른 광주 청소년의 미래를 담은 도전, 자율, 기회의 공유학교’를 슬로건으로 광주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가진 공유학교의 이름이다. 또한, 광주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담아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지역협력기반 도전, 자율, 기회 제공의 광주 지역교육협력플랫폼이다.

『하남 하이캠퍼스 공유학교』는 ‘하남 청소년의 미래역량을 더 높이(high) 키운다는 캠퍼스형 공유학교’를 슬로건으로 하남의 지역 사회 공간과 전문시설을 또 다른 학교 교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캠퍼스 공유학교라는 의미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high)의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역협력 기반의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하남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이다.



미담하이 공유학교 안내



문화예술공유학교 단원모집



미래시디지털공유학교 교육활동 모습 ①,②,③

광주하남형 미담하이 공유학교를 시범운영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광주하남 수요기반 공통특색 ‘미래 AI 디지털 공유학교’와 광주 지역 특색 ‘문화예술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공유학교’를 시범운영한다.

미래 AI 디지털 공유학교는 광주하남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20명을 선착순 모집하였는데 200명이 넘게 지원하며 10: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 AI 디지털 공유학교는 디지털리터러시 및 AI 블록코딩, IOT 센서, 디지털시민성 등 미래교육 분야에 대한 역량과 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시 상상캠퍼스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간씩 10월 28일까지 7주간 운영하였다.

광주지역의 특색을 살린 광주형 문화예술 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시범공유학교는 관내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경험이 있는 초중고 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단원을 40~50명 모집하여 광주 대양중학교에서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8주간 운영하며 관악오케스트라 합주 및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하남형 미담하이 공유학교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22일, 광주중앙고등학교에서 미담하이공유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타 부서와 연합하여 광주하남 교육콘서트·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시범공유학교 운영 영상을 공유하고 2024년도 공유학교 사업 홍보 리플렛을 배포, 홍보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2024 광주 하남 지역교육협력플랫폼(경기공유학교)의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하남 미래형 공유학교의 지역 특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전문 기업 및 대학, 청소년교육시설과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하남형 미담하이공유학교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밖 전문가와 자원을 통해 미래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더욱 다양한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요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동두천 양주의 D.I.Y. 공유학교』 Yangju Innovation Living-Lab Center

동두천(Dongducheon) 양주(Yangju)교육의 중심인 아이들(I)이 함께하는

동두천 양주의 D.I.Y. 공유학교

동두천 양주의 D.I.Y. 공유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 열어가는 동두천양주 공유학교의 이름으로 동두천(Dongducheon)과 양주(Yangju)교육의 중심에 아이들(I)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특화 천문 체험 프로그램인 천문 공유학교, 예술·스포츠 여름캠프인 예스! 공유학교, 전문 예술 심화 프로그램인 예술 영재 공유학교,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및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동두천 한국어공유학교 4가지 모델을 구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한 진로, 스포츠, 예술 체험 중심 모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 내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진로체험과 스포츠와 예술 관련 교육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양주 D.I.Y. 공유학교는 진로, 스포츠,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유학교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DIY 01. 예술과 스포츠의 만남 예스! 공유학교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예원예술대학교, 동두천 시체육회, 양주시체육회와 함께하는 예스! 공유학교를 초·중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예스! 공유학교는 예술과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확대 활성화 요청에 따라 기획된 공유학교로, 이곳에서는 K-POP 캠프(보컬, 댄스, 랩), 귀금속 공예, 2D 애니메이션, 밴드 등의 예술 프로그램과 배드민턴, 축구, 탁구, 볼링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 되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예술과 스포츠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다양한 꿈과 열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Y 02. 밤하늘 별도 함께 공유하는! 천문 공유학교

2023년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 고등학교 326명을 대상으로 천문 공유학교를 성황리에 운영하였다. 이번 공유 학교는 동두천양주의 지역자원인 송암 스페이스 센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태양, 별자리, 망원경의 원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천문대 교육 프로그램과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우주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움이 됐다.”, “실제로 체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며 공유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바램을 표현했다.

현재 10월 18일부터 천문 공유학교 시즌 II 를 운영중이며, 11월 23일까지 약 320여명의 학생 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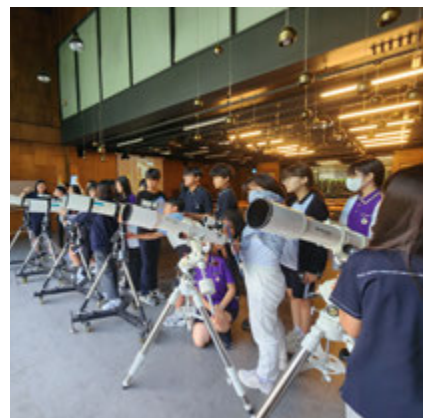
DIY 03. 예술공유학교라면, 예술창작소 프로그램도 우리 마을에서!

세 번째 공유학교는 9월 9일부터 10월 21일 6주 동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예술 공유학교 이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마스터 클래스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자체(양주시청)가 수업 공간을 제공하는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기획 되어 평소 경기학교예술창작소(용인시 소재)의 전문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어려워하던 학생들의 바람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배움의 장을 열어 주었다. 현재는 미디어아트 1기 과정을 마무리하고 웹툰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진행 중이다.

DIY 04. 동두천 한국어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기반 첫 모델!

동두천시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0월 19일 ‘한국어공유학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동두천 한국어공유학교는 지역교육협력 기반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의 첫 번째 모델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 최소화, 공교육 진입 지원과 지역 학생들이 다함께 어울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지원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위탁교육과정, 다문화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동두천 한국어공유학교는 11월부터 관내 다문화 학생(중·고교)의 개별 맞춤형 한국어 집중 교육,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방과 후, 방학 중)을 시범 운영하며, 2024년부터 운영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의 가치를 일깨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연천 생생(生生) 공유학교!

2023 연천 생생(生生) 공유학교는 연천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연천형 학교밖 학습터이다. 평화·통일, 미래·과학·진로, 자연·환경·문화 등 학교별 운영되고 있는 **특색 교육활동의 공유와 연천 지역의 특성을 담은 「연천 생생(生生) 주제 중심형 공유학교」**와 지방 자치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 및 창작 활동을 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연천 생생(生生) 자율방문형 공유학교」**가 있다.

학교와 연천을 공유하자! 생생(生生) 공유학교 탄생!



연천교육지원청은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의 가치를 일깨우는 연천형 미래교육의 추진 의지를 담아 ‘연천 생생(生生) 공유학교’로 네이밍하고, 경기 공유학교의 의미를 담아 연천형 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군부대가 많은 연천의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학·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연천형 공유학교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관내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연천만의 특별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제작하여 공유학교 지원과 홍보에 힘을 다하고 있다.



생생물사랑학교(한탄강댐물문화관)

폐교에 생기를 불어 넣다! 연천 여름 생생(生生) 공유학교!

연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연천 지역 주제중심 공유학교인 **[연천 생생(生生) 여름 공유학교]**를 운영했다. 학교 안팎의 교육프로그램 10개를 평화·통일, 미래·과학·진로의 주제 중심으로 선정해 지역 내 폐교(대광중)를 거점으로 지역 내 학교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참가 학생들을 위해 공유 버스를 통한 등·하교 지원 및 학습터 이동이 지원되었고, 관내 교사 및 외부 강사, 기관 등 다양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내 특화 교육을 공유한 도예교실(화진초), 제빵체험교실(은대초), 드론 비행교실(연천왕산초), 과학실험 / 탐구교실(전곡초)이 운영되었으며, 지역 특색 자원을 연계해 물 교육으로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연천 생생 물 사랑 학교, 연천 고랑포구역사공원과 연계한 연천 역사탐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태풍전망대를 연계한 평화통일 여행, 감성 발달을 위한 기승교실도 함께 운영되었다.

공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실험, 실습을 한 점,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점 등에 크게 만족하였고, 학부모들 역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뜻깊게 보낸 점들을 크게 만족하였다.

연천교육지원청은 2024 연천형 공유학교의 전문·심화 프로그램 구성과 장기적인 운영방안 및 학년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등을 모색 하여, 연천형 지역맞춤 공유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 벌써부터 노력한다고 하여 기대가 된다.

지역 자원을 교육자원으로! 연천 생생(生生) 자율방문형 공유학교!

연천 생생(生生) 공유학교에는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율방문형 공유학교가 있다. 연천의 한탄강댐 내·외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천 생생(生生) 물 사랑 학교]**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연천 생생(生生) 평화·통일 학교]**, 육군 제5보병사단(열쇠부대)에서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연천 생생(生生) Key school]**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업무협약을 맺어 수자원 관련 자연·생태·환경 교육을 하는 **[연천 생생(生生) 물사랑 학교]**를 개교하였고, 상반기 1기, 2기를 시작으로, 11월 3기도 운영 예정이다. 또한 **[연천 생생(生生) 평화·통일 학교]**와 **[연천 생생(生生) Key school]**도 참가 신청을 받아 11월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도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과 공생하며, 학교 밖 학습터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과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 시 시흥 공유학교!

『다가치 시흥』, 『다문화 시민』, 『다함께 시작』

글로벌 다 시 공유학교는 시흥 지역 다문화 배경 학생 증가로 인해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중언어, 심리정서(상담), 학교생활안내, 학생진로직업 교육을 지역사회 협력 기반으로 학교 밖 학습과 연계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밖 배움터이다.

다 시 시흥 공유학교란 『다가치 시흥』, 『다문화 시민』, 『다 함께 시작』이라는 의미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공유학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생활을 돕는 이중언어 공유학교, 다문화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의 정서 심리 안정을 위한 정서심리 공유학교뿐 아니라 대학연계 공유학교와 생활교육 공유학교까지 기존의 지역협력기반사업을 5가지 모델로 재구조화하였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시흥교육지원청만의 특색있는 다.시 공유학교를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자.

다시 그리는 다문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시흥교육지원청은 가장 먼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았다. 인구의 약 10%가 외국인이며,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학생에 약 6%인 시흥교육지원청은 안산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특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안산, 화성·안산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수가 많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특수성으로 이미 시흥에는 다양한 다문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었지만 시흥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가정의 출신 지역별 프로그램 또는 언어·가족·심리상담·문화·진로와 같이 주제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다시 재조직화 하는 작업을 통해 ‘시흥형 다문화 공유학교 모델’을 구축하였다.

‘시흥형 다문화 공유학교’는 총 5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연계를 통한 진로직업체험 공유학교(모델Ⅰ),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상화문화이해 공유학교(모델Ⅱ), 중도입국·이주민 배경 학생의 한국어 기초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 공유학교(모델Ⅲ), 시흥가족센터의 이중언어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를 통한 개인·집단 상담을 통해 다문화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의 정서 심리의 안정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서심리(상담) 공유학교(모델Ⅳ), 마지막으로 시흥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팀과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한 한국 문화에서의 음주, 흡연, 성에 대한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생활 교육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다양한 언어 자막을 함께 제작·제공하여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활교육 공유학교(모델Ⅴ)로 구성하여 2023학년도에는 일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학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찾아가는·찾아오는 시흥형 공유학교 탐방

2023년 10월부터 11월 23일까지 관내 서해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 초등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창조V관 및 체육관을 활용하여 시흥형 공유학교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함께하는 대학연계 진로직업 공유학교’, ‘예명원과 함께 하는 다도를 통한 문화이해 공유학교’, ‘시흥경찰서와 함께하는 이중언어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을 시범 운영되고 있다.

문화이해 공유학교는 예명원의 다도를 통한 문화 이해 및 기초 인성 프로그램이고, 대학연계 진로직업 공유학교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11월 4일 토요일에 드론 조종 및 미디어 편집을 중점으로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평상시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되고, 체험해 보게 되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공유학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장중심의 공유학교 안착을 위한 노력

시흥교육지원청이 마련한 5개 영역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시흥시의 학생들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미래시대의 주역으로써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더불어 2024학년도에 전면시행되는 공유학교의 안착을 위해 개별 단위 교육주체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학교·학생·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지원과 프로그램이 수반된다면 더욱 의미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학년도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해초등학교 전다혜선생님은 “지역협력단체인 예명원과 함께 운영한 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소감에서도 ‘스스로 우린 우리 차를 마셔보는 활동이 흥미롭고 또 뿌듯하였다’는 응답이 많아 다문화 비율이 높은 지역 특색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유학교가 현장에 큰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공유학교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남겼다.

2024학년도에 전면시행되는 공유학교의 안착을 위해 지금과 같이 간소화된 신청과 더불어 학교·학생·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지원과 프로그램이 수반된다면 더욱 의미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지역주민이 다함께!

세종 같이학교(여주형 공유학교)!

‘세종 같이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체험학습, 프로젝트 활동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여주 학습터로 청소년,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부하며 배우는 자치배움터로 자리매김할 학교로 ‘같이’와 ‘가치’의 여주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여주형 경기공유학교를 의미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여주교육의 가치를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세종 같이학교를 함께 알아보자.

2023 세종 같이학교를 그리다

여주교육지원청은 2022 여주 청소년 같이 한마당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지역교육협력 기반 배움터를 포함한 여주 마을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기존의 배움터를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타지역 공유학교 견학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여주에 맞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여주형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 지역 내 거리의 한계로 세종 같이학교 참여가 어려운 학교와 학생을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시 차량을 제공하는 등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배움을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이전되는 여주초등학교에 세종 같이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활동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파일럿 프로그램! 세종 같이학교 & 세종과학캠프

여주교육지원청은 2023년 7월 실시한 지역 맞춤형 교육활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교육 기반의 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세종 같이학교를 운영하였다.

6월부터 여주 푸르메 소셜팜과 협력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같이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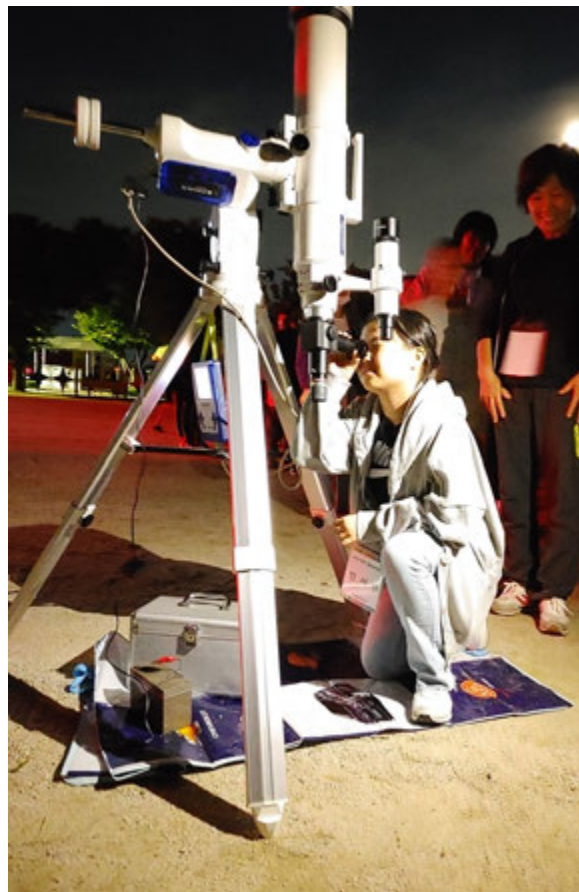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8차시 간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 및 교육 시간 중 안전 등 유의할 사항이 많았다. 직업교육 같이학교를 기획한 이민철 팀장(여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은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푸르메소셜팜에서 직업교육을 할 수 있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7월 27일~28일 진행한 세종과학캠프는 피지컬로봇을 활용한 코딩반, 자율주행자동차 코딩반, 가족과 함께하는 별달관측반 등 과학(IT)·환경분야 활동을 진행하였다.

10월 13일에는 남한강에서 카약과 패들보드를 배우는 수상스포츠 같이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만족도 높은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 수업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답하여 경기공유학교의 운영 취지가 잘 녹아들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한 접근성과 주체의 다양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2024 세종 같이학교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교장, 교감 및 학부모, 지역교육협력 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기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며 2024학년도에는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세종 같이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 세종 같이학교를 통해 ‘모두가 같이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자율 균형 미래 로 나아가는 용인형 공유학교

2023 용인형 공유학교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의 시설과 전문가를 공유하는 학생맞춤 소그룹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플랫폼이다. 학생맞춤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시설과 전문가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6명 내외의 소그룹 프로젝트 학습, 에듀테크를 활용한 활동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용인형 공유학교의 설립 배경

용인형 공유학교는 용인시의 지역교육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되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간 학령인구의 편차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편성 학급 외 교실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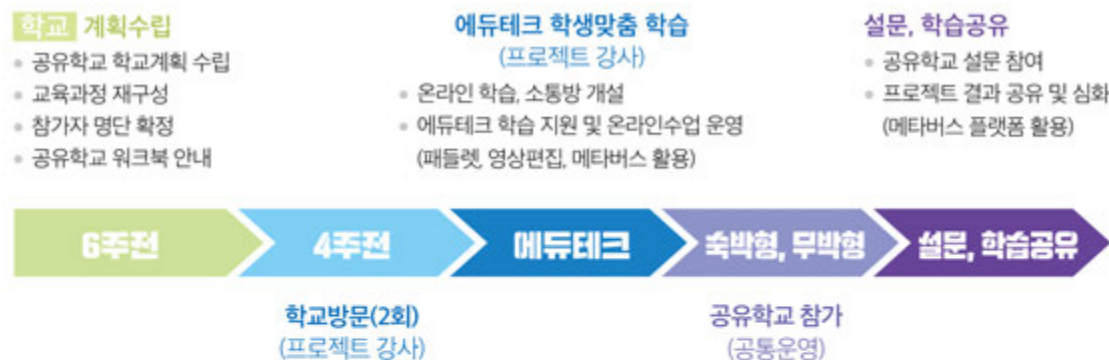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인 ‘자율, 균형, 미래’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공간 활용, 예술·역사·ICT 등 ‘균형’ 있는 학습 분야의 구성, AI·생태·스포츠 등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는 체험 등으로 공유학교 체험처를 구분했다.

용인캠퍼스와 기업연수원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 체험 공간, 생태 공간, 스포츠 센터 등 약 20여 개의 학교밖 학습터가 용인형 공유학교 체험처로 선정되었고,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도 협력 중이다. 앞으로도 6개의 체험처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 현황

올해 1~2월 공유학교 프로젝트 활동 참여 학교를 모집 및 선정하였고, 전문가 연수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신봉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12개 학교에서 43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7기의 경우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개별 학생 신청형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무박형(5일) 또는 숙박형(4박 5일)으로 운영되었다.

프로젝트는 6주 전부터 시작된다.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주제, 공유학교 체험처를 선정한다. 모든 과정에서 에듀테크가 적극 활용된다. 온라인 학습, 소통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패들렛과 영상 편집을 활용하여 학습 결과물을 창출한다.



1차시

- 용인형 공유학교 안내
- 프로젝트 주제선정
- 공유학교 체험처 사전 선택

2차시

- 팀별 프로젝트 세부 주제 선정
- 에듀테크학습 안내
- 팀별 필요물품 선정
- 학교 & 지역 전문가 프로젝트 공유

- 용인형 공유학교 운영 (숙박형, 무박형 프로젝트 운영)
- 월·팀별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이룸학교)
- 화·목·지역체험처 연계 학습(3일)
- 프로젝트 강사 멘토링 수업
- 금·프로젝트 결과 공유(이룸학교)

용인형 공유학교가 나아갈 방향

용인형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심화된 내용을 배우면서 학생맞춤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기 대현초등학교 최OO 학생

“박물관을 3일이나 간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3일이나 가면서 유물을 보는 눈이 하루하루 달라져서 그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암중학교 김OO 교사

“프로젝트 주제와 결과물 간의 간극이 채워지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체험을 하고 나니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소감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몰입하여 활동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2024년 용인형 공유학교의 행보와 학생들의 뜻깊은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